아직 본래 그 사람이 아니다

(시편 96:1~13)

1.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2.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4.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5.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6.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7.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아직 본래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아직 본래 그 사람이 아니다’
십자가 안쪽에 마음이 머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생애를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생애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모셔서 나의 공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날마다 죽는 것은 마음이 십자가 안쪽에 머무는 것이고, 몸은 십자가 바깥쪽 즉 세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측면과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 지어서 생각할 것은 ‘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아직 본래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 ‘아직 본래 내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격은 나에 대한 의식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나를 의식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즉 대상이 있어야만 나에 대한 구체적인 의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너로서 관계할 대상이 없다면 나에 대한 의식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들이고 딸임을 의식하는 이유는 너의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편인 것은 너의 자리에 아내가 있기 때문이고, 선생님이라면 너의 자리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라면 너의 자리에 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나에 대한 의식은 구체적인 내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인간뿐만이 아니라 대물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인식이 곧 나에 대한 의식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라면 너의 자리에는 많은 돈이 있기 때문이고, 빈털터리라면 너의 자리에 텅 빈 잔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자동차 명품등도 마찬가지여서 그것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도 하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없으면 풀이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의식을 채워주는 모든 종류의 너의 존재는 머리털만큼의 예외도 없이 육체를 통해 관계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를 의식하게 하는 것은 육체로 만나는 대상입니다. 이 육체로 접하는 것들의 차이점으로 인해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갈등하고 싸우는 지옥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 죽음은 이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은 마음이 몸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몸이 세상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몸에 근거하여 나를 만들어주던 너의 위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육체로 근거하여 만난 세상의 모든 너의 자리에 있던 것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 너의 자리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직장동료 친구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에 대해서 죽는 것은 곧 아들로서 죽고 남편으로서 죽고 선생으로서 죽고 목사로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너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에는 십자가 안쪽에서 하나님 크기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십자가 안쪽에서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는 예수님이 상대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첫 상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최초의 상대자로 해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내가 육체가 남아있는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마치 파견을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이라면 단순히 아내의 배우자가 아닌 남편의 자리에서 본래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난 기쁨을 아내에게 표현하는 자가 됩니다. 부모라는 자리에서 자녀에게 그 기쁨을 표현하고, 선생님이라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사장이라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그 기쁨을 표현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는 국민에게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파

견을 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5절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십자가 안쪽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최초의 상대자로 관계하여 태어나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아내를 너로 해서 태어난 남편의 입장에서, 자녀를 너로 해서 태어난 아빠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한 나라를 너로 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만, 나라나 배우자나 자녀가 최초의 너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믿음인데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나라도 배우자도 자녀도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로서 대한민국에 파견을 나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러한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시종일관 온 우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는 새로 지은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측면을 깨닫게 된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의 어떤 면이 새삼스럽게 감격스럽고 위대하였기에 이제까지 부르던 노래를 완전히 새 노래처럼 부르는 경험을 한다는 것일까요?
3절에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라는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지구에서 유일하게 만민 가운데에 참 하나님이 되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별로 와 닿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종교상황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풍습이 있습니다. 고갯마루에 있는 서낭당 옆에는 오방색 끈이 현란하게 매여 있는 신목(신의 나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랫마을을 지나며 신었던 짚신을 걸어둡니다. 이제 서낭당을 경계로 하여 다른 마을로 들어갈 때에 신(神)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전 마을을 거닐던 짚신을 그냥 신고 들어가면 새로 들어가는 마을의 신이 노하기 때문에 서낭당에 짚신을 걸어놓고 새 신을 신고 소원을 빌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고대근동의 전쟁은 자기 민족들의 신들과 다른 민족의 신들과의 대리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을 인간들이 대신 싸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침략할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러한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을 보면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앗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어서 12절을 보면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종교관에서는 어느 한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을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 한 민족의 신이 지구의 만국백성을 다스리는 유일한 참 신이 존재한다는 개념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제외하고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렇다 할 괄목할 세력을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남방으로는 애굽의 눈치를 보았고 북방으로는 앗수르를 비롯한 신흥세력인 바벨론에게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고 주변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조그만 나라 남 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이름을 두신 여호와가 만국백성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상을 갖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신전들과 비교해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있었지만 특별히 포로귀환 이후에 이러한 사상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니 기가 죽어서 살아야 할 텐데, 이들은 만국백성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으로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우주적 보편성을 바로 성전을 근거하여 찾고 있습니다.
8~9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곧 번제물로 드려질 희생제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름다고 거룩한 것'이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성격을 말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제사는 신에게 바치는 뇌물성 제사이자 아부성 제사로 소원을 잘 들어달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제물을 죽이는 제사였습니다. 즉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육체로 만나는 것들을 흡입하면서 살았던 삶을, 더러움으로 알고 영적인 간음으로 알고 죄악으로 알아서 그 마음을 죽이는 제사가 번제단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한 제물이었기에 아름답고 거룩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껏 남 왕국 유다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전매특허인줄로만 알고 하나님

을 전유하며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포로귀환을 하며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을 때에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벨론과 앗수르와 바사의 발전된 문명을 접하며 자신들의 삶이 그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선민으로서 가나안 복지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육체로 관계하는 복지를 너의 위치에 세워서 나에 대한 의식을 채워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에 근거해서 기쁨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나를 번제단에서 죽일 수 있다면 이방인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즉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예표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은 곧 육체에 근거된 문화적 관습적 언어적 모든 차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 사람의 문화는 우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뜨거운 밥에 카레를 부어서 먹으므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맨손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먹는 쌀과 카레의 조리법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같은 카레를 먹는데도 이렇게 문화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적 관습적 언어적 차이는 육체에 근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체에 근거되어 만나는 대상들을 통하여 나를 인식하며 살아왔기에, 십자가에서 육체로 관계하는 것들에 대한 죽음은 피부색이나 문화나 관습과 언어를 초월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마음만 남기 때문에, 십자가 안쪽에서 새로 태어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운명으로 팔자로 여기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것이라면 모를까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예수님과 꼭 붙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을 최초의 상대자로 모시고 관계한다는 점에서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육체로 기쁨과 만족을 캐내려하던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일 때에 하나님을 최초의 상대자로 관계할 수 있습니다.

포로귀환 이후에 재건된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른 나라의 신전들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규모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금과 은으로 지었던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성전의 번제단에서 하나님만이 만국백성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발견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 노래가 정확하게 포로귀환 이후에 쓰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고 이러한 사상 자체는 포로귀환 이후에 발전하였으나, 사상의 근거는 번제단에서 육체에 근거한 마음을 죽인다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육체에 근거해서 나를 찾았던 사람이 죽는 것이 바로 번제단의 죽음입니다.

육체에 근거해서 만나는 대상을 너의 위치에 두고 생겨난 나에 대한 인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입니다. 이러한 죄악 된 마음은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 철저하게 죽여야만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전적인 부패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통해 만나는 대상들에게서 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을 채울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본래 나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인식함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하는 너의 위치에 있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너의 위치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최초의 너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육체와 관계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즉 번제단의 온전한 완성이신 십자가가 우리를 죽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이질적 문화를 가진 사람들조차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본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합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독도 문제로 자꾸만 한국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아베 수상조차도 십자가 안쪽으로 마음을 들여놓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대로 살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는 것이고, 그럴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베나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십자가를 만날 기회가 주어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도하셨던 사람으로 되찾아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 때에도 해야 할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본래 사람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황조차도 마음을 십자가 안쪽에 두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본래의 사람됨은 나라와 문화와 관습과 언어와 인종과 남녀와 빈부귀천과 지식의 유무를 초월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살아가는 곳이 세계 어느 곳이든지 파견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육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십자가 안쪽에 둔 사람들이 교회이며, 그들의 육체의 삶은 파견 된 삶입니다.

십자가 전까지는 본래의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의 사람이 아니기에 사장이 괴팍하게 굴지라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본래의 사람이 아니기에 남편의 무능함을 불쌍히 여길 이유가 됩니다. 자식들의 성적이 안 좋더라도 나무라는 대신에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국백성의 하나님 되심이 십자가에 근거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태어난 나로서 하나님으로 주어진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는 사명을 충실히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